

# 동궁지(東宮址) 출토 불상

## 강우방

동궁지(東宮址) 발굴 조사에서 불교미술품이 수습되었는데 사원이 아닌 궁전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동궁의 건물지는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변경 혹은 훼손되어 건물의 평면배치를 가사로 부원할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출토유물도 빈약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안압지에 연한 네곳의 건물의 일부가 연못으로 무너져 내려 동궁(東宮) 생활상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상당량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그런 가운데 네곳의 건물지와 관련된 많은 양의 불상 및 불교공예품이 발견된 것은 예상외의 일이었다.

제1건물지에서는 금동보살판불 1점, 제2건물지에서는 청동제 귀니쌍, 광배식 화불 및 수정장식다수, 제3건물지에서는 광배편 소수, 수정장식소수, 제4건물지에서는 금동여래입상 3구, 금동여래좌상 1구, 광배편, 광배식 화불, 화염보주 등 다수, 금동보황 1점, 그리고 건물지와 관련된 남쪽 심과 그 동편 대안(對岸) 사이에서 금동삼존판불 2구, 금동보살판불 7구, 용두장식구 1쌍 등이 수습되었다.

안압지 연안에 면한 건물 이외에도 불상들이 여러 건물에 봉안되어 있으나 쉽게 추측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추출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신앙면에서 불교신앙이 궁중생활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음을 유물로 실증할 수 있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용왕신심(龍王辛審) 남근신앙, 목랑(木郎) 등 고대한국의 고유신앙과 공존하고 있는 현상을 알게 되었다. 궁중생활의 기저에 강하게 흐르고 있는 신앙생활이 일상

적인 금속공예와 토기의 일부를 제하고는 모든 유물에 질계 찬색되어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안압지에 연한 네곳의 건물지와 관련하여 수습된 불상을 가지고 내불당같은 특정의 예배장소를 상징한 바 있으나 동궁지 전역에 편재한 불교유품으로 미루어 독립적인 예배장소가 있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단지 제2건물지에서 등신대의 불상을 추정할 수 있는 청동제 귀니쌍이 수습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건물지는 六間四間(六間四間) 건물로 이곳이 어떤 내불당 같은 성격을 띠었는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이들 불교유품을 계기로 천주사(天柱寺)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천주사지는 본궁과 동궁 사이에 있는데 본궁과 동궁을 포함한 궁역(宮域)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셈이 된다. 천주사는 진평왕이 내제석궁(內帝釋宮)에 가행(駕行)하여 석제(石梯)를 밟아 삼석(三石)이 병절(並折)하였다는가, 경덕왕대에 월명사(月明師)를 시켜 두술가(兜率歌)를 지어 부르게 하여 품다(品茶)와 수정 열주 一〇八개를 내릴 때 한 동자가 이를 받아 들고 사라지는걸 쫓아가 보니 동자가 내원탑중(內院塔中)에 들어가 숨고 차(茶)의 주(珠)는 남벽 자씨상전(慈氏像前)에 있더라는 기록들을 보면 천주사는 내제석궁, 내원(內院) 등으로 불리웠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내불당이 엄연히 있었으므로 별도의 다른 내불당을 상상하기 보다는 일상생활의 기저에 불교신앙이 강하게 흐르고 있는 만큼 전(殿)마다 불상을 안치하는 공간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삼국사기의 직관지(職官志)의 동궁내의 승방의 존재는 천주사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고 한편 그 당시 정신적 지도자는 승려들이었으므로 궁중에 승려가 거처하는 방이 있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둘째로 동궁지 발견의 불상은 종래 사원지에서 발견된 것과는 형식과 의장이 전혀 다르다.

금동삼존판불과 금동보살판불은 통일초의 새롭고 독창적인 형식과 뛰어난 기법을 과시한 대표적 불상으로 부각되었고 의장은 화려하기 그지

없다.

그밖에 많은 양의 광배식화불에서 보이는 특이한 의장 화려한 장식성은 일반사원 것과는 다른데 이것은 궁실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이라 생각된다.

금동삼존판불은 당(唐)의 정관원년(貞觀元年·六七二年) 명불제자 영조상삼존진불(佛弟子耶瑛造像三尊佛)과 일본의 백봉시대(白鳳時代) 전반기에서 후반에 이르는 사이에(七세기말—八세기초) 유행하던 압출불(押出佛) 형식이 같다. 백봉시대의 압출불 및 진불 그리고 법흥사 벽화에 안압지 출토 금동삼존판불과 같은 형식 같은 양식이 크게 유행하는 데 여기서 통일신라 불교미술이 일본 백봉시대 불교미술에 끼친 강한 영향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그외 여러 형식의 화불, 천인상, 주악천인상, 사리장래상(舍利將來像), 신장상, 천개(天蓋) 등 종래에 보지 못하던 다양하고 새로운 도상(圖像)들이 출토되어 통일신라 불상연구에 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

## 안압지출토 와전(瓦搏)의 제문제

김성구

와전은 점토를 일정한 모양으로 만들어 가마(瓦窯)에서 구워낸 일종의 건축부재이다. 지붕에 기와를 잇는 것과 전을 사용하는 풍습은 고대 동양 건축의 하나의 특색으로서 중국의 진한시대(秦漢時代)부터 이미 시작되어 우리나라에는 한사군의 설치에 따라 삼국시대초기에 유입되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에서 각각 특색있게 발전을 보게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서 이러한 세 종류의 양식이 하나로 복합되고 또한 성당문화(盛唐文化)의 외연적인 지극에 힘입어 독자적인 와전공예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통일신라시대는 우리나라 고대문화의 황금시대라 칭할만큼 전반적으로 문화의 개화기를 맞이했던 때라고 볼 수 있는데 비단 와전도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시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장 많이 남아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와전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제까지 통일신라 와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제외되다시피 하여 당시의 전체문화에 있어서의 분야별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이 사실이다.

안압지 및 주변유적지인 동궁(東宮)에서 출토된 와전류는 파편을 포함하여 二四,〇〇〇여점의 방대한 양이다. 안압지의 조성에 관한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인 문무왕(文武王)一四년(六七四)에 시작하여 문무왕 一九년(六七九)에 이룩된 것으로 이 유적에서 출토된 와전류는 고신라와 고려시대의 유품으로 볼 수 있는 四〇~五〇여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통일신라직후부터 통일신라가 멸망할 때까지의 二六〇여년간 사이에 제작되어 사용된 것으로 통일신라와 와전의 집합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